

인천시교육청 학력향상 종합대책 발표

인천 떠난 인재 돌아오나



◆권진수 인천시교육청 권한대행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양한 명품학교 확대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 영재교육 대상 확대 인문사회 영역 신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의 학력을 실용성 있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학력향상 종합대책'은, 지난 3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주최한 범시민대토론회 '학력'을 인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논의 내용과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그 동안 인천교육의 낮은 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의 경쟁력을 저하시켜왔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지난해 7월부터 개선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최상의 인천교육으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 이제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경우, 1~2년 이내에 인천 교육은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번 '학력향상 종합대책'은 학력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인천의 학력제고를 갈망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학력신장 체제 구축, 학력향상 사업, 배려계층 학생 학력신장 지원, 교원전문성 강화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급년부터 향후 5년간 총 8,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명품학교를 확대하고, 학력 성공학교를 육성하여, 인천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학력성공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에 학력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학력향상을 위한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별 10~20명씩 '인천사랑 장학생'을 선발하여, '인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할 예정이다.

한편, 학력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학급·학교별 학력향상도를 공개하여, 단위 학교의 학력향상 노력에 평가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한다.

또한, 학생 수업선택권을 강화해 교과교실제를 확대하여 학생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되도록 할 예

학급·학교별 '학력향상도' 공개 우수교사 학습 연구년제, 부적격 교사 퇴출

정이다. 아울러, 성적 이력관리 초·중·고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학생 개별 맞춤형 학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지역별로 외국어교육학습센터를 설립하여 인천의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까지도 자기주도적 외국어 학습 및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 단계별 학력신장 및 우수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초등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생들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특목고·일반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진로중심의 개별학생 성적이력 관리리를 통한 학력신장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반고등학생의 학력신장은 대학진학지원센터를 통한 개인별대입 전문지도로, 개별 학생의 희망 대학 입학에 위한 목표 중심의학력신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학력신장은 직장과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격증과 직업전문능력신장 위주의 실력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타 시·도로 간 인천학생이 돌아올 뿐 아니라, 앞으로는 학력 때문에 인천을 떠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 과제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배려계층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게 양질의 무상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명품학교 전형 시 입학정원의 10~20%는 배려계층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우선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용성 있는 각종 대책도 마련되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여, 교장·교감 경영평가 및 교사 전문성 평가를 통한 전문성 신장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학력향상 부문에 중점을 두어 학력향상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학력신장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교사 임용 시 전문성 검사 및 적성검사를 도입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적합한 교수·학습 능력은 물론, 가르치는 일에 적합한 적성과 자질을 중요한 선발 요건으로 할 계획이다.

다양한 명품학교 확대

자율형 사립고 신설 및 전환, 자율형 공립고 확대, 특목고 및 국제학교 증설, 학교 이전·재배치,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하여 다양한 명품학교를 확대함으로써 인천의 교육 프리미엄을 높인다.

이들 학교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별도 전형을 통해 10~20%의 정원을 배정하게 된다.

저소득층 무상 심화학습 제공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심화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소득

수준의 차이가 학력 격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학력 전담부서 설치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나 학급·학부·교사의 학력성공 사례를 교육현장 곳곳에서 발굴·일반화함으로써, 인천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학력성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학력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학력인천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학력정책 연구, 기초학력 책임제(T&T) 지원,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운영하며, 각종 학력평가 시행하고, 결과 통계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학급·학교별 '학력향상도' 공개

또한 학급·학교별 '학력향상도'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학력향상 지원비를 차등 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며, 학력향상 중심의 장학지도 및 학교 평가를 실시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 학력'이 아닌 '학력향상도'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지역적으로 학력이 높은 학교보다는, 학력이 낮은 지역의 학교에서도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학습 의욕을 높이는 동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인천 관내 모든 학교에 학력 향상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학교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여 기피 학교가 없어지도록 한다.

'인천사랑 장학금' 신설

인천사랑 장학금을 신설하여 학교별 학력우수 학생을 선발한다.

인천사랑 장학생은 1교당 10명~20명을 선발한다.

우수교사 학습 연구년제 도입·부적격교사 퇴출제 시행

교원연수 의무제 도입

모든 교원이 연간 9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수업연구교사제 운영, 원격 연수 활성화, 교과연구회 및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특히 '교사가 디자인하는 맞춤형 교사 연수'로 교원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원자율연수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교사 신규임용 시 수업능력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구조화된 교직 적성 검사 개발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교대, 사대)에서 신입생 선발 시 교직적성검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장급 '석좌 교사' 신설

인천시교육청은 학력 향상, 학교교육 신뢰도 증진의 선결과제가 '수업'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수업 잘하는 교사'를 엄선하여 '석좌교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수석 교사가 갖는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교장, 교감 등 관리직보다 더 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석좌교사는 업무를 경감해 주고 특별연구비·연수비·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장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는 한편, 교사들의 수업 기술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발표된 만큼 많은 언론사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수학생 '인천인'이라는 자부심 갖도록 적극 지원 강제 '야간자율' 폐지...자기주도학습 분위기 조성

이밖에도 1교 다 교사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기업체들이 학교장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장학생의 수를 확대하여, 우수학생들이 '인천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인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고 연계형 성적이력 관리

개인별 초·중·고 연계형 성적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플랜을 만들고, 개인별 성적 이력을 관리 구축에 주력한다. 무엇보다도 '우수 학력'이 아닌 '학력향상도'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 수업선택권 확대

교과교실제를 확대하여 능력별 이동수업을 적극 실시하고, 소수 단위 교과와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또한 영어·수학 중심 무학년제·학점제를 도입하고, 대학과목 선이수제도(University-Level Program)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한다.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학업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심

리·심성 프로그램과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 장애 요인을 진단하고 개별적으로 맞춤형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대학진학정보센터' 신설

'대학진학정보센터'를 신설·운영하여 전문적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단위학교별 진학상담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전문적인 가이드가 되어 주는 등,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한다.

영재교육원·영재 학급 증설

영재교육원 및 영재교육센터를 지역별로 확대 배치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재교육원·영재 학급 증설

현재 지역교육청과 대학 등 8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원을 17기관으로 확대·배치함으로써 우리 인천 학생들의 가능성을 조기에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영재학급을 현재의 34교, 140학급에서 2012년 이후 모든 초·중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하여 700학급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재교육 전문 코스제' 신설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한 '영재교육 전문코스제'를 신설하여 영역별, 단계적 전문과정으로 진급하게 하며, 영재교육 과정이 상급학교 진학 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화된 영재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영재교육과정'을 기초 및 심화 과정, 그리고 진학연계 과정으로 나누어, 기초 과정(1년 이내, 영재학급) 이수 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심화 과정(영재교육원) 교육을 하고, 이후 영별 우수학생이 특목고 등 다양한 명품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외국어학습센터' 신설

지역별 외국어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시민들도 언제든지 자기주도적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고,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영역전용교실 100% 설치

초·중·고 전학교에 영역전용교실을 100% 설치하여 영어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영어생활화, 영어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통해 영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영재교육 대상 확대, 인문사회 영역 신설

영재교육 영역을 '과학·수학' 중심 영역에서 '인문사회·문화·예술 등 8개 영역으로 확대하며, 영재교육 선발 기회를 늘리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현재의 1%에서 3%로 확대한다.

그리고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 또한 확대한다.

영재교육원·영재 학급 증설

영재교육원 및 영재교육센터를 지역별로 확대 배치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교육청과 대학 등 8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원을 17기관으로 확대·배치함으로써 우리 인천 학생들의 가능성을 조기에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영재학급을 현재의 34교, 140학급에서 2012년 이후 모든 초·중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하여 700학급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재교육 전문 코스제' 신설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한 '영재교육 전문코스제'를 신설하여 영역별, 단계적 전문과정으로 진급하게 하며, 영재교육 과정이 상급학교 진학 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화된 영재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영재교육과정'을 기초 및 심화 과정, 그리고 진학연계 과정으로 나누어, 기초 과정(1년 이내, 영재학급) 이수 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심화 과정(영재교육원) 교육을 하고, 이후 영별 우수학생이 특목고 등 다양한 명품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외국어학습센터' 신설

지역별 외국어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시민들도 언제든지 자기주도적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고,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영역전용교실 100% 설치

초·중·고 전학교에 영역전용교실을 100% 설치하여 영어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영어생활화, 영어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통해 영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각급학교에 원어민교사(원어민 대체강사 포함)를 100% 배치하여,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중심 영어교육 강화, 의사소통중심의 다양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영어교사 전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연수 기회를 부여,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센터를 운영하며, 영어교과연구회 활성화를 통해 영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영어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

한편, 중국어 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공자학당을 확대·운영하고 중국어 학습체제 구축, 중국어 체험캠프 운영,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하며, 국제행사 인턴십 활동을 활성화한다.

독서 성취도평가 프로그램 개발·적용

인천시교육청은 단계별 독서성취도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 온·오프라인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학습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즉, 독서 성취도평가를 제공하고 독서호미를 유발하여 학년별, 개인별 수준에 알맞은 꾸준한 독서로 독서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단계별 독서성취도평가 프로그램은 단계별 책읽기에 따른 인종과 성취감을 통하여 인터넷 게임보다 즐거운 독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과별 학습독서 활성화

교과별 학습독서를 활성화하여 교과학습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학습능력 및 사고력 증진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는 독서·토론·논술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서는 독서를 통한 토론과 논술 대회를 실시하고, 독서·토론·논술 전문교사를 통한 특별 강연을 운영하며, 축제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학습을 운영하여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교과관련 자료 및 도서를 확충하고, 방과후 및 주말에도 학교도서관 개방을 확대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서교사와 전담 보조인력 배치를 점차 늘려서 2014년까지 인천 지역 모든 학교도서관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